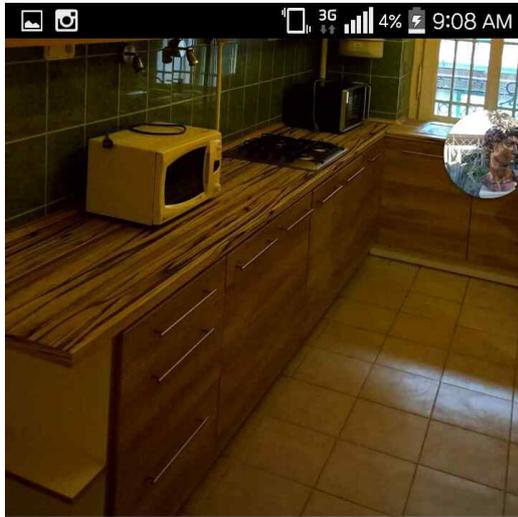


# 교환학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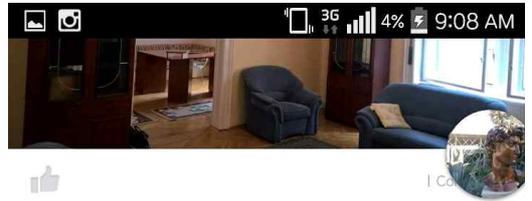
소속전공	전자공학부	학 번	201**417	성 명	한태경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헝가리	파견대학	부다페스트기술 경제대학교	파견학기	15-2학기



소요경비	<p>항공권은 급하게 구입해서 왕복으로 120만원에 구입했고 한 달 생활비는 플랫폼 30만원~35만원(유틸리티 가격에 따라 유동적이었습니다)에 식비와 용돈은 4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많이 쓴 편이었고 부다페스트가 헝가리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가격이나 외식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p>
주거	<p>교환학생에게는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플랫폼을 구하여 생활하였습니다. FACEBOOK에 많은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부터 3일간 호스텔에 지내면서 방을 보러 다녔습니다. 페이지를 검색한 후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약속시간을 정하고 방을 보러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위치(4-6트램 근처)와 좋은 시설, 저렴한 가격대의 방을 구하기 위해서 8월 31일(Orientation day)을 제외한 나머지 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방을 구했습니다. 그 주에 학교에서도 플랫폼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 가격이 발품을 팔아서 구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p> <p>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내 집도 없고 호스텔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제 스스로 한국에서도 구해보지 않은 집을 구해보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었고 저에게 큰 발전이 있게 도와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p>



1 Comment



1 Comment



룸메이트

저는 한국인 1명, 프랑스인 1명과 함께 플랫폼에서 지냈습니다. 방은 각자 사용하였고 함께 헝가리 근교 여행을 많이 다녔고 요리도 해먹으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처음 집을 구할 때 고민이 "한국인들과 살지 외국인들과 살지" 이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살면 음식과 정서가 맞아 편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외국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영어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인들과 사는 것이 훨씬 편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사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외국인들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교는 부다페스트에서 공대 중에 가장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BME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면 "똑똑한 학생이 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BME에서는 총 8개의 학부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가 수업을 듣는 건물은 최신식입니다. 학생식당은 금오공대처럼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점심시간에 보통 밖에 나가서 사먹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라 시험기간에 도서관 이용하는 것이 약간 불편한데 학교 도서관은 월~금요일에 09:00에 열어 20:00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험 하루 전 날에도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학생들은 스타벅스나 CCC(California Coffee Company)에 가서 시험 전 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대 건물]



[도서관 앞]



[도서관 내부]

<p>주말 및 여가활동</p>	<p>저는 주말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헝가리 근처의 가까운 동유럽은 금, 토, 일, 월 4일 일정으로 많이 다녔으며 저가항공사가 다니는 곳(벨기에, 독일 등 버스로는 다니기 힘든 곳)도 주말을 이용하여 다녀왔습니다.</p> <p>주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보통 친구들과 펍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매일매일 파티가 있고 친한 친구들도 전부 교환학생들이어서 매일매일 놀고 싶어 하는 것은 저와 똑같았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p>
<p>멘토 또는 교류도우미</p>	<p>오리엔테이션 날 멘토를 이어 주었지만 제가 그 날 학교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교수님과 다시 만나야 했었기 때문에 멘토가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설명해주고 펍도 가는 행사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멘토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ELTE와 BME를 다니는 헝가리 친구들과 친해져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BME 친구들은 학교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었고 ELTE 친구들은 부다페스트 도서관 이용방법과 헝가리에 관한 것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었습니다.</p> 
<p>전공</p>	<p>저는 BME에서 전자공학부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총 15학점을 이수했고 과목은 Control Engineering, Infocommunication, Microelectronics 3과목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전공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1달 채 되지 않아 수업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함께 수업을 들었던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p>
<p>수업 스케줄</p>	<p>수업은 전공 3과목(15학점), 교양 4과목(8학점) 총 23학점을 이수했습니다. 23학점이라 굉장히 빠듯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교양과목은 총 4번까지 결석할 수 있었고 전공과목은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껏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p>
<p>학생할인 관련</p>	<p>저는 오리엔테이션 날 ESN(Erasmus Student Network)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고 CCC(California Coffee Company)에서 커피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ESN은 가입비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입비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p>

ISIC카드 활용	ISIC카드를 여행 다닐 때 학생할인을 받기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부다페스트 내에서는 BME 학생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 다닐 때 학생할인이 되는지 블로그를 통해 꼭 찾아보고 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제대로 알아보고 다니지 않아서 할인 받을 기회를 많이 놓쳤었기 때문입니다.
영어공부	영어공부는 딱히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양수업을 영어공부와 관련된 과목을 2과목이나 넣어 놓았었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와 표현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행	여행은 학기 중에 동유럽은 싹 다 다녔고 학기 종료 후 1달 동안 서유럽을 여행했습니다. 동유럽은 날씨가 좋은 9, 10, 11월 초에 다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동유럽은 날씨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눈도 많이 오고 너무 추워서 관광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은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면 이것을 고려하여 여행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부다페스트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교통권입니다. 헝가리 학생증 (ISIC, ESN은 사용 불가)이 있으면 1달 이용권(트램, 메트로, 버스 모두 사용 가능)을 한화 13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4-6트램은 24시간 운행하고 학교 앞으로 가는 트램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4-6트램 근처로 구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날씨	날씨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며 9월 말~10월 초에 우기여서 계속 비가 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지는 않으나 계속 내리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다페스트의 모든 사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찍어놓아야 합니다. 겨울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야경도 보기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합니다.
추신	<p>가장 중요한 것은 헝가리에서 거주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발급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li> <li>- 여권사본</li> <li>- 여권사진 1장</li> <li>- 보험(저는 국내에서 보험을 들어서 영문으로 증서를 받아갔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갔을 경우 학교에서 보험을 도와주는는 하나 건강검진도 받아야하고 통장개설도 해야 하는데 유럽의 일처리가 너무 느긋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li> <li>- 입학허가증</li> <li>- 재학증명서</li> <li>- 항공권(저는 돌아가는 비행기를 사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li> <li>- 은행잔고증명서(영문 원본으로 해야 하며 저는 안전하게 1학기 한화 35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의 문서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출국 직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li> <li>- Property Sheet, Lease contract, Address card(이것들은 플랫폼 계약 후 집주인에게 문의하면 알려줍니다!)</li> </ul>

- Stamp(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이민국에 가야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국 처음 간 날 9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통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주증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정말 귀찮기 때문에 전 기수에게 물어보거나 갔다 온 사람에게 꼭 물어보고 서류 빠짐없이 챙겨가는 것을 권합니다!